

[특집] <국어기본법> 시행 10년, 그 성과와 나아갈 방향

—  
전문용어 정비와  
표준화의 실제 방향

의학 분야를 중심으로

—  
은희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국립암센터 초빙의

## 1. 머리말

전문용어는 우리말 어휘에서 이미 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수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몇몇 전문 분야에서는 전문용어 정비가 지속적이고 자발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전문용어가 정비되거나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전문용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소속 전문 분야 사람들의 남다른 관심이 요구된다. 특히 관련 전문가들은 전문용어 제작에 필요한 어문학적 경험을 추가로 습득해야 할 뿐 아니라 국어 학자들에게 실제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인들이 점차 전문용어에 접하는 상황이 잦아짐을 고려해 볼 때 전문용어가 전문가들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을 더 이상 주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전문가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반 대중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전문 분야에서 한 개념의 용어는 가능한 한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나의 원어 개념을 여러 우리말로 번역해 사용하면 혼란이 야기되므로 적절한 시기에 표준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문용어의 표준화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 12조(전문용어의 표준화 등)에 다음과 같이 기본 지침이 확정돼 있다.

- ① 법 제17조에 따른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각 중앙 행정 기관에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며, 그 협의회는 해당 기관의 국어책임관, 관계 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 ② 중앙 행정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체계화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심의 요청된 전문용어 표준안을 국어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후 해당 중앙 행정 기관의 장에게 회신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안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④ 중앙 행정 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전문용어를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주권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학술 단체 및 사회 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 심의 요청한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 표준안에 대하여 국어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확정안을 고시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법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법의 정신에 따라 실제로 전문용어를 정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국립국어원의 한 관계자에게 문의한 바에 따르면 극히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분야가 <국어기본법>에 따른 전문용어 정비를 못하고 있으며 정부도 언론 매체에 부각되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용어만을 겨우 정비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전문용어의 수는 막대하므로 이들을 전부 법의 취지에 맞게 정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모한 발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도 점차 전문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전문가들은 스스로 전문용어의 정비가 우리말 발전 및 선도의 최전선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전문용어는 자세히 설명을 듣기 전에는 전문가가 아니라면 개념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국어 학자들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용어를 자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가들의 능동적 참여 없이는 개선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말 발전의 많은 부분이 앞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결코 과장된 말은 아닐 것이다.

## 2. 의학 분야의 현황

오래전부터 의학 분야는 의학 용어 정립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필자는 앞으로 우리나라 전문용어의 건전한 방향 설정을 위해 그동안 시행해 온 의학 분야의 용어 제정과 표준화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전문용어 분야의 문제점과 향후 해결 방안을 피력하고자 한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의학 용어집》 1판을 낸 때는 1977년이었다. 약 2만 개의 의학 용어가 수록된 1판은 당시 우리나라에서 부분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한 의료 보험 제도로 그 필요성이 대두되어 서둘러 제작되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1984년에 약 4만 단어로 구성된 2판을, 1992년에는 약 12만 단어로 구성된 3판을 차례로 발간했다. 《의학 용어집》은 판을 거듭할수록 양적으로는 많이 늘어났으나 질적으로는 크게 변하지 못했다. 이는 과거에 일본 학자들이 만든 의학 전문용어를 그대로 채택한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일본식 용어를 우리말로 전환하고 일부 어려운 한자어 대신 쉬운 우리말을 채택하기도 했으나 이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2001년에 발간된 약 5만 4,000단어로 구성된 《의학 용어집》 4판은 우리말 순화에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제작 당시부터 의학자들뿐 아니라 국어 학자들을 참여시켜 많은 의학 용어들의 우리말 제작과 순화에 심혈을 기울였다. 한 원어에 해당하는 우리말 용어가 두 개 이상 있는 경우 병렬시켜 앞에 위치한 것을 권장 용어로 제시해 훗날 단일 표준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권장 용어의 개념은 보다 광범위하고 자유로운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아울러 이는 비단 권장 용어로 그치지 않고 의사 국가시험 제도에 바로 반영되어 실천 면에서도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강력한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의학 용어집》 4판과 그 이후 의사협회 용어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추구한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상용 한자에서 벗어난 어려운 한자어로 구성된 의학 용어들을 고유어나 쉬운 한자로 바꾸었으며(예: 어린선 → 비늘줄, 둘째로 상용 한자로 구성된 용어라고 해도 한자의 동음이의어가 문제가 되어 의사소통에 지장을 주는 용어들을 고유어를 활용하여 대체하였대예: 열모 → 털찢김. 셋째로 번역이 어려워 외국어를 발음 나는 대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말로 새로 제시하였대예: 헤르니아 → 탈출증. 넷째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

는 용어가 아닌 전형적 일본식 한자 용어를 우리말에서 쓰이는 한자어로 전환하였을 뿐 아니라예: 흑자 → 흑색점, 길항 작용 → 대항 작용, 우리말 문법이나 표현에 기초한 새로운 말들을 만들어 내었다예: 교만 → 휘저음, 천명 → 썩썩거림, 루 → 셋길(은희철 2015:59, 20~30).

《의학 용어집》 4판의 출간은 의학계뿐 아니라 의학 외 분야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 이는 발전적인 면에서 좋은 의미의 충격을 주었을 뿐 아니라 동시에 기존 용어를 고수하려는 측의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물론 의사협회에서는 《의학 용어집》 발간 과정에서 수십 개에 이르는 의학계 각 분과 학회(피부과학회, 미생물학회 등)들과 사전 모임을 개별적·그룹별로 갖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분과 학회에 따라서는 이러한 정책에 매우 비협조적인 곳들도 있었으며, 심지어 용어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곳도 있어 모든 분야들이 의사협회의 방침에 잘 따른 것은 아니었다.

이에 의사협회는 반발의 대안으로 파급 효과가 큰 약 1만 단어를 선정하고 일부 반대 의견을 수렴하여, 2005년에 《필수 의학 용어집》을 발간한 뒤 온라인으로 공표하여 새로운 용어들을 보다 빠르게 전달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일단 공표되고 의사 국가시험에 새로운 용어들이 사용된 이후에도 원래 용어로 돌아가고자 하는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다. 이러한 반발에 대한 타협안으로 2009년에 발간된 《의학 용어집》 5판에서는 4판과 체제는 거의 같으나 권장 용어의 개념을 없애고 권장 용어든 기존 용어든 임의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서문에 명시하는 것으로 후퇴하였다. 아울러 4판에서 삭제했던 한자 용어를 일부 복원했으나 전체적인 본문의 체계는 4판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는 분과 학회에서 새 용어에 대한 저항이 지속적으로 얼마나 심했던가를 단적으로 말해 준다. 옛날 용어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움직임은 그

후에도 멈추지 않았으며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권장 용어 개념을 부정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하므로 하루빨리 표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좀 더 설득력을 갖게 되어, 의사협회에서는 가장 파급 효과가 크고 문제가 되는 중요 용어들을 선정하여 이들에 대한 권장 용어 200여 개를 최근에 공표하기에 이르렀다. 의사협회는 앞으로 기본적인 권장 용어를 확정하고 이를 다른 파생어로도 확대할 계획인데, 이러한 정책이 앞으로 모든 의학 전문용어들에 어떻게 파급될지는 현재 준비 중인 《의학 용어집》 6판에서 지켜볼 일이다.

### 3. 저항의 이유

전문용어 순화나 제작에 참여해 본 사람이라면 새로운 원어를 처음 번역하는 것보다 기존 용어를 순화하여 정착시키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것을 실감할 것이다. 특히 논의의 핵심이 되는 한자어를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고유어를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개인 성향, 교육 정도, 각 분과 학회 정책의 방향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전문용어를 새로 제작할 경우는 몇몇 용어 위원들의 합의와 국어 학자의 자문 정도로 끝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미 사용하던 용어를 순화,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의사들을 설득하여 동의를 얻어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은 왜 힘들었을까? 그간 의사협회의 전문용어 개혁은 사실 위로부터의 개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각 분과 학회의 저항은 필연적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저항이 끊임 없이 지속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몇몇 영향력이 있는 핵심 인사들의 개인 의견이 끈질기게 영향을 주었던 것도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저항의 결과로 의사협회의 권장 용어 정책의 방향은 표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용어 정책의 성패에 가장 중심적인 이 문제를 좀 더 심층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미 저서에서 이를 자세히 분석한 바 있으며(은희철·송영빈·정인혁 2013:267~273), 최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필자의 수필에서도 몇 가지로 나누어 기술한 바 있다(은희철 2015:60, 22~31).

### 3.1. 순화 용어 자체가 흔히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

순화 용어가 흔히 알려진 고유어일 경우, 예를 들어 종전에 사용하던 용어인 ‘개선(疥癬)’을 ‘옴’과 같은 말로 바꾸려 할 때 큰 부담 없이 잘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그 반대로 고유어가 흔히 알려져 있지 않은 용어일 때는 저항이 매우 심하다. 대표적인 예가 ‘glomerulus’이다.

의학 분야에서 ‘glomerulus’는 몇 가지 다른 뜻으로 쓰이나 작은 실핏줄이 뭉쳐 있다는 의미로 널리 사용하고 있다. ‘glomerulus’는 과거부터 ‘사구(絲球)’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토리’라는 고유어가 새로 제시되었다. 토리는 실을 둥글게 만 뭉치라는 고유어이나 흔히 접하는 말이 아니다. 물론 ‘사구’도 의미 전달이 어렵다는 점은 같다고 본다. 더구나 둘 다 혈관이 둥글게 뭉쳐 있다는 은유적 표현이므로 처음에 접하면 이해하기 쉬운 용어들은 아니다. 따라서 ‘사구’를 ‘토리’로 바꾸려고 할 때 이에 대한 저항은 매우 심했으며, 고유어로 정착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필자도 ‘토리’라는 말을 용어위원회에 들어와서 처음 접했다.

다른 사람이 잘 모르는 말을 제시했을 때, 누구나 이를 선뜻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새로운 말에 대해 일반적으로 개방적 자세인가, 아닌가도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직업적 자존심의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의사이며 교수라는 사람들이 자신이 이제껏 한 번도 들어 본 일이 없었던 말을 쉽게 받아들일지? 물론 이 경우 ‘사구’라는 말이 없었다면 쉽게 받아들였을지도 모른다.

### 3.2. 상용 한자로 된 용어이거나 이미 많이 알려진 한자 용어인 경우

이러한 상황에 있는 대표적인 한자어 전문용어와 그 후에 제정되었던 고유어를 활용한 전문용어의 짝을 몇 가지 제시해 보면 ‘결석/돌, 복수/뱃물, 호흡/숨’ 같은 것들이 있다. 이러한 경우 고유어로 구성된 말들이 좀 더 또렷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평범한 한자로 구성된 말이라도 한자는 음절 수 제한으로 동음이의어가 많아 혼동의 우려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한자어 자체도 이미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상태이며 의미 연상이 비교적 어렵지 않으므로 새로 제시된 고유어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러한 말들은 워낙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바꾸면 해당 전문 과에서는 당분간 매우 번거롭게 될 수 있으므로 사용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쉽게 합의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일 뿐 막상 바꾼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단지 이 경우에는 비슷한 용어들의 통일성 문제를 늘 의식하고 바꾸려고 하는 모든 관련 용어나 합성어들을 사전에 다 검토해야 하므로 이는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닐 것이다.

### 3.3. 고유어 사용으로 길어진 음절 수에 대한 저항감

근육이 자발적으로 운동할 경우, 근육 상호 간에 협조적인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매끄럽지 못하게 되는 상태를 ‘ataxia’라고 부른다. 이에 대한 번역으로 ‘실조(失調)’란 용어를 써 왔다. ‘실조’란 조화를 상실한다

는 뜻인데 그 자체가 간략한 면은 있으나 실제 내용을 잘 설명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의학 용어집》 4판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용어인 ‘조화운동못함증’으로 제안되었다. ‘실조’를 구성하는 한자는 둘 다 상용 한자에 속하나 동음이의어가 많은 한자들이다. 그런데도 《의학 용어집》 5판에서는 다시 ‘실조’로 돌아갔는데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은 새로 제시된 용어가 길기 때문일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운동이라는 말을 생략하고 ‘조화상실증’을 새로 제시하고 싶다. 사실 ‘실조’란 말 자체도 조화를 하지 못한다는 의미 이외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 단 ‘실조’는 동음이의어 관계로 의미 유추가 어렵다는 것뿐이다. ‘조화상실증’은 물론 ‘조화운동못함증’보다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ataxia’란 말의 어원 자체(taxis는 질서라는 뜻이며 이의 부정형임)가 의미하는 것에 오히려 정확히 일치한다.

‘adipsia’도 ‘무갈증’이란 한자어 대신 ‘목마름없음증’이란 말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부정을 의미하는 ‘무’를 ‘없음’으로 전환한 것도 충격이나 흔히 쓰는 말인 ‘갈증’을 ‘목마름’으로 변화시킨 데다 이로 인하여 음절 수가 배로 늘어났다. 오히려 ‘갈증없음’이나 ‘갈증없음증’이라는 말을 제시하였다면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많았다고 생각한다. ‘갈증’이라는 말은 의미 전달이 쉬운 평범한 한자어이다. 이를 ‘목마름’이라는 고유어를 사용하여 같이 전환시키려는 의도는 이해되나 이로 인해 음절 수가 많이 늘어났다. 이와 같은 것은 간혹 지나친 고유어화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목마름없음증’이 용어로서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용어는 의미 전달을 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간결해야 사용자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용어 제작에서 음절 수를 줄이는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 프로 골프 선수가 한 타 수를 줄이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것처럼 전문용어를 제작하는

사람들도 최소의 음절 수를 추구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 3.4. 의미 파악이 어렵지만 방송 매체를 통해 이미 널리 알려진 한자

일반적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용어가 일반인에게도 널리 퍼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중에는 용어 자체에 문제가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에게 친숙하다는 이유로 새로 제작된 용어를 분과 학회에서 지속적으로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용어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치매’이다. 이는 일반인들도 많이 접하는 중요한 용어인데 초기 단계에서 잘 정리하지 못해 일단 굳어진 경우이다. 일단 일반인들에게 널리 퍼지면 나중에 제아무리 좋은 용어를 만들더라도 바꾸기 어렵다. 이와 유사한 또 다른 예는 ‘골다공증(osteoporosis)’을 들 수 있다. ‘골다공증(骨多孔症)’이란 뼈의 실질 조직이 감소하여 특히 나이 든 사람들에게서 골절을 잘 일으키는 질환을 말한다. 이 말은 뼈에 구멍이 나 있다는 말에 기원하는데, 실제로 방사선 조사를 해 보면 뼈조직이 감소된 것이 여겨지기 나타난다. 수세미와 같이 영성하다는 개념을 활용한 ‘뼈영성증’이라는 고유어를 의학용어위원회에서 만들었다. 그러나 국어 학자들의 좋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에게 이미 널리 알려진 ‘골다공증’을 대체하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골다공증’이란 말은 누가 가르쳐 주기 전에는 의미 유추가 매우 어려운 용어이지만 이러한 말이 이미 방송 매체나 일반인에게 널리 퍼진 상황에서는 바꾸는 데 많은 반발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혹 공식적인 권장 용어로 ‘뼈영성증’이 채택되지 못한다 해도 개념에 입각한 쉬운 말을 일반 사전에 추가하는 것은 ‘골다공증’이란 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 3.5. 제시된 고유어가 의미 전달에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의학 용어집》 3판에 ‘margin’은 ‘연, 경계’로 4판에서는 고유어를 활용하여 ‘1. 모서리 2. 가장자리, 경계’로 정리되었으며, 5판에서는 ‘1. 가장자리 2. 모서리 3. 경계’로 정리되었다.

‘모서리’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모가 진 가장자리”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것은 특수하게 각진 경우에 한정해 사용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자리가 낫다고 본다. 더 짧은 말로 ‘가[예: 물가, 냇가]란 말과 ‘변두리’란 말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margin’과 거의 비슷한 개념의 ‘border’라는 말은 ‘가장자리, 모서리, 경계’로 번역되어 혼용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의학 용어집》 5판에 기술된 모서리를 사용한 일부 합성어는 가장자리로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예: gingival margin, 잇몸모서리 → 잇몸가장자리. 그러나 가장자리의 한 가지 흡은 음절이 너무 길다는 데 있다. 따라서 말이 너무 길면 제한적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단음절 고유어 ‘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예: eyelid margin, 눈꺼풀가장자리 → 눈꺼풀가, 동공가장자리 → 동공가. 고유어에서 단음절은 간결성과 연관되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이를 잘 사용하면 그 이용 가치가 아주 크기 때문이다. 숨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활용해야 한다.

### 3.6. 상업적 측면

depilation 털제거(술), 제모술

dermabrasion 기계적벗김술, 박피술

lipoaugmentation 지방키움술, 지방확대술

이 세 가지는 대부분 개인 병원에서 미용과 관련해 많이 사용하는 용어들이다. 각 용어에서 앞의 것(털제거(술), 기계적벗김술, 지방키움술)은 《피부 과학 용어집》 3판에서 추천한 용어이며, 뒤의 것(제모술, 박피술, 지방확대술)은 과거에 쓰던 용어다. 개원의들 중에는 자신들의 수입과 직결된 용어 변경에 저항이 많으며 종래 사용하던 용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제모술’로 현재 ‘제모술’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들이 있다. ‘벗김술’은 초창기에는 주로 기계적벗김술을 사용했으나 요즘은 세분화했다. 화학 물질을 사용할 때는 화학벗김술, 레이저를 사용하면 레이저벗김술로 구분하기 때문에 전문용어도 개념이 바뀔 때마다 주기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얼마 전 한 경제학자와 만난 일이 있었는데 그 분야에서는 새로운 우리말 용어를 하나의 상품 가치로 평가하고 다른 사람보다 선점하려 한다는 것을 듣고 놀란 일이 있었다. 상업적 측면은 전문가들의 용어 선택과 결코 무관할 수 없는 문제이다.

기존 용어를 순화하고 새로운 용어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과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인문학이나 인간 심리학과도 깊이 연관되는 여러 가지 요소가 관여되기 때문이다. 기존의 용어를 고수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왜 이러한 일에 쉽게 합의할 수 없는지를 잘 이해하게 된다.

#### 4. 음차 용어 사용의 문제점

전문용어는 가능한 한 모국어로 번역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원어(대부분 영어)를 우리말로 적절하게 번역하거나 만들어 쓰지 않고 그대로 발음 나는 대로 표기하는 용어(음차 용어)가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필자는 아래와 같이 분석하고 있다(은희철·송영빈·정인혁 2013:255~256).

음차 용어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영어권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지적되는 문제이다. 과거에는 일본 사람들이 만든 전문용어를 우리가 그나마 차용하여 왔지만 점차 일본 학자들도 새로운 원어에 대응하는 일본어 제작에 한계를 느껴 원어를 그대로 발음 나는 대로 쓰는 추세이다. 음차 용어가 무조건 다 나쁜 것은 아니며 특히 번역이 무의미한 화학명이나 인명, 지명 같은 것들은 그대로 쓸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적절한 우리말로 충분히 다듬어 사용할 수 있는데도 음차 용어를 쓰려는 전문가들이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fibrin’이란 말을 ‘섬유소’로 쓰려 하지 않고 ‘피브린’으로 쓰려 한다든지 ‘epitaxi’를 ‘켜쌍기’로 쓰지 않고 ‘에피탁시’로 사용하려 한다. 음차 용어를 유난히 선호하고 이들이 번역어보다 낫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필자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싶다.

- 번역에 심혈을 기울이고 싶지 않다. 시간 낭비이며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것을 하겠다.
- 번역하려는 사람 자체가 언어 감각 내지 지식, 경험이 부족한 경우도 많다.
- 음차 용어를 쓰면 초기에는 이를 모르는 다른 사람이 늘 묻게 되므

로 일시적인 지적 우월감을 느낄 수 있다.

- 후에 다른 사람들이 좋은 말을 개발하여 그 용어를 번역하더라도 쓰고자 하지 않는다. 이것에는 자신이 주도가 되어 번역어를 만들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깊이 깔려 있다.
- 음차 용어를 오래 쓰다 보면 그것이 좋다고 느끼게 된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익숙하다고 하여 음차 용어의 사용을 계속 주장하게 된다.
- 번역어는 때로는 언어 장벽 때문에 그 원어의 모든 의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음차 용어를 쓰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다.

의학 분야 말고도 다른 모든 전문 분야에서 음차 용어의 급격한 확대는 심각한 문제이다. 언어 순화 과정에서 음차 용어를 쓸 것인가 아니면 번역어를 쓸 것인가의 문제는 전문용어 표준화에서 시급히 결정해야 할 과제의 하나이다. 전문가들이 범람하는 음차 용어로부터 일차적으로 우리말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영어가 한자어와 같이 우리말에서 주인 행세를 할 날도 멀지 않기 때문이다.

음차 용어를 부득이 사용할 때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발음 나는 대로 표기하는 것이 분야별, 개인별로 차이가 많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통일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으며 실제 전문용어를 제작하는 사람들도 표기법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 5. 의학과 타 분야의 표준화

의학은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 기초 과학과도 깊은 연관이 있을 뿐 아니라 유전학, 생명공학, 공학과 같은 이공계 분야 및 심지어 심리학, 인문과학, 예술 분야와도 연관이 있는 학문이다. 따라서 《의학 대사전》에 실려 있는 용어 수를 보더라도 다른 전문 분야보다 월등히 숫자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의학 분야의 전문용어 정비는 비단 의학 분야 내의 문제로만 그칠 것이 아니며 필연적으로 타 분야 용어와의 관계를 심각히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2006년에 나온 《핵심 과학기술 용어집》과 2009년에 나온 《의학 용어집》 5판을 비교하여 보고 두 용어집에서 서로 차이가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유형별로 분석해 보았다. 이 중 한 단어가 여러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과 일부 경미한 차이가 있는 것들은 다 제외하였으며, 오직 한 가지 원어(영어)가 같은 개념과 대상을 의미하면서도 서로 다르게 용어가 정리된 것들만 골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이를 각각 표에 구분하여 정리하였다(은희철 · 송영빈 · 정인혁 2013:280~285).

### 5.1. 서로 다른 한자를 사용한 예

한 가지 개념의 용어를 두 용어집에서 서로 다른 한자어로 번역해 사용하는 경우는 흔히 관찰되며, 이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통일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예들을 모아 [표 1]에 정리하였다.

[표 1] 서로 다른 한자어를 사용한 경우

원어	《핵심 과학기술 용어집》	《의학 용어집》 5판
dextrorotatory	우회전-	우선성
diurnal variation	일일변화	하루변이, 일중변동
DNA repair	디엔에이[DNA] 수선	DNA 복구
elastic fiber	탄성 섬유	탄력 섬유
heteroploidy	이형배수성	이상배수성
induced mutation	인위돌연변이, 유도돌연변이	유발돌연변이
initiation codon	개시코돈	시작코돈
interface	1. 경계면, 계면	경계면, 접촉면
isoenzyme	동질효소, 동위효소	동종효소
mechanism	1. 메커니즘 2. 기구	1. 기전, 메커니즘, 기구 2. 기계론
pacemaker	길잡이, 심박조율기, 박동원, 박동기	박동조율기, 길잡이, 조정자, 발동기
pathogenesis	발병과정	발병기전
phototropism	광굴성, 광굴성	굴광성, 향광성
spore	흄씨, 포자	흄씨, 포자, 아포
stroma	1. 버팀질 2. 기질	버팀질, 간질
surfactant	표면활성제, 계면활성제	표면활성제, 표면활성물질
transient	1. 과도적 2. 일시적	일과성

## 5.2. 고유어 활용의 차이

용어를 번역해 쓴 경우 한 용어집에서는 고유어를, 다른 용어집에서는 한자어를 쓴 사례도 있다. 이를 [표 2]에 정리하였다.

[표 2] 고유어 활용의 차이

원어	《핵심 과학기술 용어집》	《의학 용어집》 5판
aplanatic lens	구면수차지움렌즈	구면수차제거렌즈
attenuator	1. 감쇠기, 줄이개 2. 감쇠조절인자	감쇠자, 감쇠물
coat protein	겹질단백질	외피단백질
endospore	내생휴씨, 내생포자	속휴씨, 내생포자
hydrophobic	물밀침성, 소수-	소수-, 소수성
paper chromatography	종이크로마토그래피	여과지크로마토그래피
pendulum	흔들이, 진자	시계추, 진자
subculture	계대배양	대이음배양, 계대배양
taste receptor	맛수용기	미각수용기

### 5.3. 한쪽 분야에서만 통일된 예

같은 개념의 한 용어를 한 용어집에서는 두 가지로 번역한 반면 다른 용어집에서는 한 가지로만 통일시킨 예들을 [표 3]에 정리하였다.

[표 3] 한쪽 분야에서만 용어가 통일된 경우

원어	《핵심 과학기술 용어집》	《의학 용어집》 5판
arrangement	배치, 배열	배열
arthropods	절지동물, 마디발동물	절지동물
bile	쓸개즙	담즙, 쓸개즙
bone	뼈	뼈, 골
cartilage	연골, 물렁뼈	연골
citric acid	시트르산	시트르산, 구연산
coronary artery	심장동맥	관상동맥, 심장동맥
dark adaptation	암순응	암순응, 어둠적응
diplococcus	쌍알균	쌍알균(속), 쌍구균(속)
diploid	두배수체, 이배체	두배수체
encoding	부호화, 코드화	부호화
Eustachian tube	유스타키오관, 귀인두관	유스타키오관
free radical	자유라디칼	자유라디칼, 자유기
hanging drop culture	방울배양, 현적배양	방울배양
insecticide	살충제, 해충약	살충제
kidney	콩팥	콩팥, 신장
nymph	애벌레, 유충	약충
pylorus	날문	날문, 유문
sarcolemma	근세포막	근세포막, 근초
ultrafiltration	한외거르기	초미세거르기, 한외거르기

#### 5.4. 용어의 음차 표기 간 차이

한 용어의 음차 표기가 용어집 사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표 4]에 정리하였다.

[표 4] 용어의 음차 표기 간 차이

원어	《핵심 과학기술 용어집》	《의학 용어집》 5판
carboxylation	카복시화	카르복실화
cyanide	사이안화물	시안화물
cytochrome	사이토크롬	시토크롬
cytosine	사이토신	시토신
estrogen	에스트로젠	에스트로겐
hemocyanin	헤모사이아닌, 헤모시아닌	헤모시아닌
myoglobin	마이오글로빈	미오글로빈
niacin	나이아신	니아신
nucleoside	뉴클레오사이드	뉴클레오시드
nucleotide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티드
pepsinogen	펩시노젠	펩시노겐
peptide	펩타이드	펩티드
progesterone	프로제스테론	프로게스테론
riboflavin	라이보플라빈	리보플라빈

### 5.5. 음차 용어 선호도 차이

용어집에 따라 용어를 음차하거나 우리말 번역어로 표기한 경우를 [표 5]에 정리하였다.

[표 5] 음차 용어 선호도의 차이

원어	《핵심 과학기술 용어집》	《의학 용어집》 5판
chromatid	염색분체	염색분체, 크로마티드
conductance	1. 전도도 2. 컨덕턴스	전도도
fibrin	피브린	섬유소, 피브린
fibrinogen	피브리노젠	섬유소원, 피브리노겐
heterosis	잡종강세	헤테로시스, 헤테로강세
mitochondria	미토콘드리아	사립체, 미토콘드리아
motor neuron	운동뉴런	운동신경세포, 운동뉴런
oscillograph	오실로그래프	오실로그래프, 진동기록기
placebo	속임약, 위약	속임약, 헛약, 플라세보
provitamin	풋비타민, 프로비타민	풋비타민
scanning	훑기, 주사, 스캐닝	스캐닝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주사전자현미경	스캐닝전자현미경, 주사전자현미경
subclass	아강	아강, 서브클래스
zymogen	효소전구체	효소원, 지모겐

## 5.6. 준말 선호도 차이

한 가지 의미의 용어이나 한 용어집에서만 준말을 사용한 경우를 [표 6]에 정리하였다.

[표 6] 준말 선호도 차이

원어	《핵심 과학기술 용어집》	《의학 용어집》 5판
color sense	색감각	색각
endoplasm	내부원형질, 속원형질	속형질, 내형질
inbreeding	1. 근친교배 2. 동계교배	근교배(법), 순계교배(법)
optic nerve	시각신경	시(각)신경
protease	단백질분해효소	단백분해효소

위에 언급한 여러 가지 예들은 극히 일부이며 실제 수집하면 좀 더 다양한 예가 관찰될 것이다. 의학 내에서도 세부 분과 학회별로 같은 의미를 지닌 한 용어를 서로 달리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분과 학회 자체들의 고집 때문에 쉽게 타협하지 못하는 것을 흔히 경험하였다. 따라서 같은 개념의 한 원어를 다른 분야에서 달리 사용하고 있을 때 중립적인 사람이나 단체가 표준화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관점에서 <국어기본법 시행령>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6. 의학계의 권장 용어와 이와 관련된 문제점

손승국은 최근 의학 용어 원탁토론회에서 《의학 용어집》 5판에 실린 용어들과 초·중·고등학교의 교과서들에 실린 용어들을 비교 분석하고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고 있다(손승국 2013:200~215).

초등학교에서는 대부분 고유어를 사용하는 반면 중학교에서는 고유어와 한자어를 일관성 없이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로 가면서 한자 용어 사용이 많아졌다. 또한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 배우던 것이 고등학교에서는 다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이를 배우는데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 즉, 초·중·고등학교 간의 교육 과정에서 의학 용어에 대한 연속성이 부족하고, 배우는 시기에 따라 용어도 변하여, 학생들의 효과적인 학습을 기대할 수 없다. 교육학에서도 선행 학습의 효과가 후속 학습에 미치는 영향 또는 효과를 전이라고 하는데, 그 학습 사이에 같은 요소가 있을 때 전이가 더 잘 이루어진다고 한다. 즉, 용어의 유사성과 통일성, 자극의 유사성을 높이는 것이 초·중·고등학교로 이어지는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한발 더 나아가 의과대학에서 그 효과를 더욱 기대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표 기은 최근 의사협회에서 추천한 중요 권장 용어 200여 개 중 주로 장기와 연관된 용어들이다. 이 중에는 ‘esophagus 식도’, ‘stomach 위’와 같이 원어를 한 가지 말로 이미 통일한 것도 있지만 아직 한 가지 원어에 두 가지 이상의 우리말 용어들을 병렬하고 있는 것들도 많다. 이 경우 짙은 글씨로 표시한 것이 권장 용어이다.

[표 7] 중요 장기에 관련된 우리말 권장 용어(질은 글씨가 권장 용어)

원어	우리말	원어	우리말
Esophagus	<b>식도</b>	Ascending colon	<b>상행결장</b> 오름잘록창자, 오름창자
Stomach	<b>위</b>	Transverse colon	<b>횡행결장</b> , 가로결장, 가로잘록창자
Gallbladder	<b>담낭</b> , 쓸개	Descending colon	<b>하행결장</b> , 내림잘록창자
Pancreas	<b>췌장</b> , 이자	Sigmoid colon	<b>구불결장</b> , 구불(잘록)창자
Cardia	<b>들문</b> , 분문	Rectum	<b>직장</b> , 곧창자
Pylorus	<b>날문</b> , 유문	Peritoneum	<b>복막</b> , 배막
Duodenum	<b>십이지장</b> , 샘창자	Common bile duct	<b>총담관</b> , 온쓸개관
Small intestine	<b>소장</b> , 작은창자	Lung	<b>폐</b> , 허파
Jejunum	<b>공장</b> , 빈창자	Thorax	<b>가슴</b> , 흉부
Ileum	<b>회장</b> , 돌창자	Pleura	<b>가슴막</b> , 흉막
Large intestine	<b>대장</b> , 큰창자	Kidney	<b>신장</b> , 콩팥
Cecum	1. <b>맹장</b> , 막창자 2. 맹관	Renal pelvis	<b>신우</b> , 콩팥갈래기

[표 기에 언급한 권장 용어들은 앞으로 착수하게 될 《의학 용어집》 6판에서 모체가 될 것이며, 이와 연관되는 많은 용어들을 가능한 한 정비할 예정이므로 파급 효과가 대단히 클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와 같이 정비될 때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이미 실린 용어들과 상치될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이다. 예를 들어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모두 ‘gallbladder’를 쓸개, ‘pancreas’를 ‘이자’로 표기하고 있다(손승국 2013:200~215). 그렇다면 앞으로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는 이를 따라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대표적인 예이지만 많은 용어들을 누군가 최종 조정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앞에 언급한 법령에 따라 정부가 앞장서서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표 8]에 수록된 용어는 [표 7]에 언급한 것 이외에 그동안 의학 분야에서 오랜 기간 논의되었고, 최종적으로 권장 용어로 채택된 것들이다. 이들 권장 용어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의학 용어집》 4판보다는 좀 더 타협이 이루어져 일부 한자어로 다시 돌아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동안 각 분과 학회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한 것들을 일부 수용하였음을 의미한다. 각 분과 학회에서는 다른 분과 학회 용어의 순화 과정에는 다소 관대하나 자신들이 속해 있는 분과 학회 용어들의 순화에는 매우 보수적인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특별히 몇몇 용어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cervix’란 말은 ‘목’이란 뜻이며 기존에 경부라는 말을 다 목으로 바꾼다면 ‘uterine cervix’도 ‘자궁목’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산부인과 의사들이 원하는 대로 ‘cervical cancer’만 예외적으로 ‘자궁경부암’을 최종적으로 수용하였다. 비슷한 이유로 내분비 관련 과의 요구대로 ‘gland’는 전부 ‘샘’으로 통일하였으나, ‘thyroid gland’는 ‘갑상선’을 허용하였다. 이와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나 분과 학회들의 저항을 무마할 수 있는 일종의 고육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각 분과 학회에서 주장한다고 해서 의사협회에서 다 수용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권장 용어는 어떤 일률적인 철학하에 잘 다듬어진 것이 아니라 일종의 타협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타협안이 일반인이나 국어 관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를 포함한 다른 분야들과의 조정도 추후의 과제이다.

[표 8] 기타 중요한 우리말 권장 용어(질은 글씨가 권장 용어)

구분	원어	우리말
산부인과 관련	Uterine cervix	<b>자궁목</b> , 자궁경부
	Cervical cancer	<b>자궁경부암</b> , 자궁목암
내분비 관련	Gland	<b>샘</b> , 선
	Thyroid	<b>갑상선</b> , 갑상샘
순환기 관련	Cardiovascular disease	<b>심혈관질환</b> , 심장혈관질환
	Coronary artery	<b>관상동맥</b> , 심장동맥
	Aneurysm	<b>동맥류</b> , 동맥자루
	Chest pain	<b>가슴통증</b> , 흉통
	Angina pectoris	<b>협심증</b> , 가슴조임증
	Tachycardia	<b>빠른맥</b> , 빈맥
	Congestive heart failure	<b>울혈심부전</b> , 울혈심장기능상실
호흡기 관련	Inspiration	<b>들숨</b> , 흡기
	Wheeze	<b>쌩쌩거림</b> , 천명
	Pneumonia	<b>폐렴</b> , 허파염
	Pleurisy	<b>가슴막염</b> , 흉막염
	Pneumothorax	<b>기흉</b> , 공기가슴증
	Pneumoconiosis	<b>진폐증</b> , 폐먼지증, 허파먼지증
소화기 관련	Swallowing	<b>삼킴</b> , 연하
	Appendicitis	<b>충수염</b> , 막창자꼬리염
	Fecal incontinence	<b>대변실금</b> , 대변새기
	Cholelithiasis	<b>담석증</b> , 쓸개돌증
	Gastrostomy	<b>위창냄(술)</b> , 위조루(술)
	Pancreaticoduodenectomy	<b>십이지장절제(술)</b> , 이자삼창자절제(술)

구분	원어	우리말
신장 관련	Nephron	신장단위, 콩팥단위
	Cortex	피질, 겉질
	Glomerulonephritis	사구체신염, 토리콩팥염
	Hydronephrosis	수신증, 물콩팥증
	Urolithiasis	요로결석증, 요로돌증
	Chronic renal failure	만성신부전, 만성콩팥기능상실
기타	Optic nerve	시신경, 시각신경
	Aphasia	실어증, 언어상실증
	Tremor	떨림, 진전
	Epilepsy	뇌전증, 간질
	Osteomyelitis	골수염, 뼈속질염
	Osteoporosis	골다공증, 뼈영양증
	Suture	봉합, 꿰맬
	Incontinence	1. 실금, 새기 2. 실조
	Pyuria	고름뇨, 농뇨
	Nocturia	야간뇨, 야뇨증
	Allergic rhinitis	알레르기비염, 알레르기코염
	Otitis media	중이염, 가운데귀염
	Otoscopy	이경검사, 귀보개검사
	Back pain	요통, 등통증
	Spasticity	경직, 강직
	Purpura	자색반(증), 자반(증)
	Palpebra	눈꺼풀, 안검
	Nystagmus	안진, 눈떨림
	Bacillus	막대균, 간균, 바실루스
	Pus	고름, 농
Schizophrenia	조현병, 정신분열병	

## 7. 향후 정책 방향

향후 정책 방향을 논하기 전에 이 분야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먼저 언급하고자 한다.

전문 분야에서 전문용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용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학회 대부분에서는 회장이나 이사장의 임기가 짧아 임원들이 교체될 때마다 용어 위원장뿐 아니라 위원도 수시로 바뀌는 것이 보통이다. 용어집을 만든 경험이 있는 용어 위원들이 임기를 채우고 사퇴하고 나면 용어 위원들의 경험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흔하다. 물론 대한피부과학회나 대한해부학학회와 같이 약 10년 단위로 용어집을 제정하면서 용어집의 간사를 맡은 분을 차기 용어 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연속성을 갖게 배려하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또한 학자들이 전문용어를 잘 순화하고 제작하는 일은 개인의 학문적 성과에 크게 반영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 늘어나는 연구, 교육, 진료를 해야 하는 교수들에게 용어 작업은 가장 인기가 없는 분야이다. 하나의 새로운 용어를 잘 제작하기 위해서는 시인이 가장 적합한 단어를 찾아내는 것과 같은 어려운 작업을 거친다. 그런데 애써 하나의 용어를 만들었을 때 보상은커녕 동료들에게 비난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국어 학자들 역시 용어집을 제작할 때 개별 자문을 하기도 하나, 많은 학회에서 그에 소요되는 시간만큼 충분한 예우를 해주지 못한다. 국어 학자들의 자문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국어 학자가 전문용어 제작 초기부터 관여하여 토론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문가들이 이미 다 제작해 놓고 감수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용어 개념 파악의 한계성으로 인해 소정의 목적

을 달성하기 어렵다. 더구나 전문용어의 표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 사람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어떠한 구심점도, 관련된 조직도 없는 실정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기는 힘들다.

오랜 기간 의학계에서 전문용어 순화, 제작 과정에 관여해 오면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향후 이 분야의 이상적인 발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조심스럽게 제안해 보고자 한다.

- ① 전문용어 관련 시행령을 보면 이미 국가가 총체적으로 관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구체적인 의지와 실천에 성패가 달려 있다. 담당 공무원들도 수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단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장기적인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현재 국립국어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방형 지식 대사전’을 보다 확대시켜 모든 용어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우리말 전문용어 큰 사전’ 같은 원대한 사업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의 전문용어 정비 표준화 사업도 시급하고 중요하지만 단계적으로 분야별 전문용어들의 숫자를 늘려 표준화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는 거시적인 관점과 철학에 바탕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 ② 국가적 차원에서 대한민국 모든 전문 분야에 존재하고 있는 대표성 있는 용어위원회를 파악하고예: 의학 분야에서는 의사협회 용어위원회와 각 의학회 산하 분과 학회 용어위원회 이들과 유기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 이 중에는 현재까지 제작 완료된 국내의 모든 전문용어를 컴퓨터로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확충도 포함된다. 아울러 판권에 얽매이지 않도록 기존에 출판되어 있는 모든 책자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국가가 이에 대한 법적·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 ③ 용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용어 위원들에게 필요한 전문용어 제작법을 강제적, 체계적으로 단기간 교육시킬 뿐 아니라 용어 위원들이 바뀔 때마다 지속적,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 아울러 각 대학의 저학년에 일반 교양 국어 이외에도 전문용어 제작법에 대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장기적인 교육 계획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한 예로 의학 분야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서울대학교 의예과에서 전공 선택 과목으로 한 학기 실시할 예정이다).
- ④ 용어위원회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용어들을 주기적으로 정리하고 수시로 토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아울러 이들 용어 중 중요한 용어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가가 최종적으로 중재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에 상설 전문 위원을 많이 확충해야 하며 국립국어원 같은 단체와도 보다 밀접한 관련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모든 전문용어를 위와 같은 방향으로 정비하면 좋지만 일이 많으므로 중요하고 빈도가 높은 용어들이나 각 전문 분야에서 시급히 정비하고 싶은 용어들을 우선 정비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최종적으로 ①에 언급한 장기 목표를 지향한다.
- ⑤ 전문용어 분야 연구를 위한 연구비를 확보하여 국어 학자들의 관심을 유도하며 아울러 적절한 교재를 개발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 ⑥ 모든 공표된 최종 결정 사항을 즉시 실천할 수 있고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 주도의 온라인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요구 사항을 즉시 반영할 수 있는 상설 대응 팀의 구성도 필요하다.

## 8. 맺음말

전문용어의 순화 과정은 새로운 전문용어를 만드는 데 많은 경험을 제공하므로 좋은 전문용어 제작을 위해 잘 공부할 필요가 있다. 급속히 늘어나는 전문용어들을 제대로 정비·표준화하지 못한다면 우리말의 앞날은 매우 어두워질 것이다. 따라서 각 분야의 전문가가 최전선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말을 정비·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 참고문헌

- 손승국(2013), 전문학회의 의학전문용어에 관한 토론, 의학 용어유타토론회  
2013, 대한민국의학한림원.
- 은희철(2015), 기호와 의사소통, 《에세이스트》 59, 20~30.
- 은희철(2015), 반항의 산물, 《에세이스트》 60, 22~31.
- 은희철 · 송영빈 · 정인혁(2013), 《아름다운 우리말 의학 전문용어 만들기》,  
커뮤니케이션북스.